ECONOMIC FOCUS

2026. 1. 29.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1월 FOMC의 시사점

Let the data speak; 6월 인하 전망 유지

- 예상대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 축소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 완화를 강조. 추가 인하의 시급성이 약화되면서, 당분간 'wait-and-see' 유지를 시사
- 당사는 물가 정상화에 맞춘 점진적 속도의 normalization cuts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차기 Fed 의장이 주재하는 6월로 예상

예상대로 1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은 당사 및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당사에서 지난주 preview에서 언급한 대로,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 전망의 개선, 특히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 약화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 완화를 강조하며, 추가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지난 3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 중립 금리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경제 지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well-positioned)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 **미국 경제 전망의 개선(고용 및 물가 리스크의 축소):** 1월 FOMC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판단이 크게 개선된 점임. 이미 당사가 언급한 대로, 최근 발표된 주요 소비 및 투자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감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도 높은 성장률 추세가 유지될 전망. 이를 반영하여, FOMC 발표문 문구에서 경제 활동의 '완만한 성장(moderate pace)'이 '견고한 성장(solid pace)'으로 상향 수정됨. 특히,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축소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 또한, 지난해 3차례의 연속 인하를 통해 중립 금리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시간을 두고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여, 당분간 'wait-and-see' 모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 **금리 인상은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가 아님:** 파월 의장은 "FOMC 참여자 중 누구도 현재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지난해 12월의 발언을 재차 강조. 이는 비록 insurance cuts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물가 정상화에 맞춘 점진적인 속도의 normalization cuts은 유효하다는 당사의 판단에 부합하는 발언

향후 Fed의 추가 인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 혹은 물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파월 의장도 언급한 대로, 최근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노동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번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정상화가 주된 동인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추가로 더 높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물가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FOMC 내 폭넓은 컨센서스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당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12월 핵심 PCE 물가 기준 전년 대비 3.0%(관세 효과 제외 시 약 2.5%)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 올해 말 2.2%로 물가 목표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Fed의 추가 인하 시점은 차기 Fed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6월(두 번째 인하는 9월)에 단행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